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남동생과 함께

고3 수연과 미숙

고등학교 졸업

20살 꽃다운 시절

남편과 연애시절

웨딩촬영 중 안복컷

지인이 낳을때

"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수연 권차님!
 항상 하나님의 빛 되
 자녀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1호

발행일 : 2017. 3 .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

<이달의 신앙 간증>

- 김정임 집사 -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접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때 잠시 또 중고등학교 때 잠시 교회라는 곳에 다녔었다. 그러다 결혼 할 때까지 세상 속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순성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신혼의 동지를 틀었다.

그곳에서 지금에 박진선 집사님과 이영선 집사님을 만나 친구로 지내며 큰 문제없이 자잘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박집사님과 이집사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나보다 먼저 큰 아들 성일이와 작은아들 성현이를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이다. 당시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다니던 성일이는 교회에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재미있다고 “엄마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라”며 조르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나 또한 아들의 권유가 마음 쓰였고 거절하기 힘들었다. 아마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아들 성일이를 사용하신 모양이다. 아들이 계기가 되어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에서 신앙에 삶을 살기 시작했다. 큰 믿음이나 굳은 결심보다 그저 아들이 원하니까 따라 나서기 시작한 발걸음이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가 좋아졌고 또 목사님의 말씀과 구역장님의 말씀이 좋았다. 어찌 보면 내 어린 신앙으로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듣기 싫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관심 갖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은근 기분 좋기까지 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에 내가 있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는 신앙에 맞는 직분을 임명했고 그 직분에 맞게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권찰이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참 많이 더디게 받은 사람 중 하나다. 남들은 이런 내가 혹시 상처 받지 않을까 눈치보고 말을 아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상처 받지 않았다. 오히려 직분으로 인한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에 마음 한편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다 2016년에 집사라는 직분에 임명되었다. 권찰때보다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왔고 내게 너무 과분한 직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과연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기도하니 정말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앞으로 더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분이 되는 성도요 집사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내게 축복을 한없이 내려 주신 하나님께 나 또한 한없는 헌신을 드릴 것이



다. 난 순성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 중에 특히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 아플 때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이 녀석들이 한 아이가 아프다 나으면 또 다른 아이가 아프고 이 아이가 나으면 남은 한 아이마저 아팠다. 돌아가며 이녀석 저녀석이 쉴 새 없이 아프니 난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로 택시로 당진 읍내에 있는 병원을 많이도 드나들었다. 남편은 지금이나 그때나 회사가 교대 근무라 아이들 양육은 오롯이 내 몫이었기에 세 아이를 안고 업고 한숨으로 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던 축복이 내게 쏟아졌다.

나의 어려움을 알지만 크게 내색 없던 남편이 내게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미 당진에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약하고 입주하게 된 것이다. 우리 돈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남산휴먼빌을 보여주셨고 약간의 대출과 시부모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 없이 새 동지를 허락해 주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멋지게 할 줄 몰라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여름 날 한밤중 일이다. 새벽 3시쯤이었다. 성일이가 심하게 아팠다. 남편은 출근해 집에 없고 어린 성현이와 소은이까지 집에 놔둘 수 없으니 데리고 이 빗속에 병원에 가야 했다. 절망적이었고 괴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까스로 가까운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다녀왔지만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따라 택시까지도 나를 외면한 날이었으니 말이다. 면허증이 있지만 당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이 더 심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내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흘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 아우 소리 듣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 없던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아 내게 모닝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할부는 빛이라 생각하는 남편이 차값을 일시불로 다 주고 완벽하게 내게 자동차를 사 주었다. 남편에게 먼저 고마워 해야겠지만 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내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아끼고 다음을 기약해야겠다. 다만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들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오직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 올 한해 지경을 넓히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성의 지경을 넓혀 주실 때 남편과 아들 성일이 성현이 그리고 막둥이 소은이까지의 영성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어느 가정보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성도 알아가는 질문>

-전수현 권찰-

1. 고향은 어디고 어린 시절 권찰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회상해 주세요.
**고향은 당진시 합덕의 맨 끝자락 내경리에서 자랐고요.
 지금보다 더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2. 권찰님을 일컬어 우리교회 이영애라고들 말씀하시던데 그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맘에 드시는지요?
**이영애보다는 심은하 닮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분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3.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공부를 잘하셨는지, 체육을 잘하셨는지 무슨 과목에 소질이 있으셨는지요?
어릴 적 꿈은 아주 평범한 현모양처였어요. 공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곧 잘 하였는데...음~ 그 다음은 비밀입니다... ㅎㅎㅎ
4. 남편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연애시절 이야기 조금만 들려주세요.
2002년도 남편은 햄을 팔고 저는 빵을 팔다가 만났고 선하고 자상한 유머가 넘치는 성격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연애 할 때에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ㅋㅋ
5. 귀여운 따님들 셋을 키우고 계시는데요, 엄마로서 소망을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스케치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이런 것도 참으로 좋겠지만 먼 미래에 천국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김정남씨가 죽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요즘 빈번히 화제가 되는데요, 권찰님만의 교육 방침 방법 등이 매우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저보고 김일성보다 더 독재라고들 말씀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잘 따라주는데...
 조금씩은 풀어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7.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권찰님은 죽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남기고 싶은 건 없고요. 성도님들이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란 확신이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억 되고 싶습니다.
8. 남편분이 우리교회에 등록하시면 어떤 성도님이 되길 원하시는지요.
지금 생각은 등록하여 예배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 교회 내에서 참하기로 유명하신데요, 그 성격은 누구에게 물려받았으며, 권찰님 성격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참한 것 같지는 않는데 어찌지요? ㅎㅎ 아무래도 부모님의 성격을 닮았겠쥬. 장단점은 글썬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편이지만 쉽게 빨리 친해지는 성격은 되지 못해요.~

웃으십시오!

10. 기관의 회장과 구역의 구역장 중 먼저 하고 싶은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리더가 되시면 이것만큼은 꼭하고 싶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한번도 생각 안했던 질문이어서요~
이 질문은 고민해 보았지만 답이 안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1. 교회내의 롤 모델이 궁금해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종희 집사님이요. 교회의 일을 하실 때 열정적이고 헌신하시는 모습에 은혜받았습니다.
12. 네 소원이 무엇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냥 하는 기도 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기 합당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13. 지인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단아나 슬예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주님을 위한 반주 봉사의 길을 열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단아나 슬예가 하고 싶어하고 소질이 있다면 감사한일이지요~
14. 권찰님은 독순이의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진짜 독순인가요?
독순이는 아닌거 같아요 ㅎㅎ~ 그렇게 봐 주신다니 감사하고 또 독순이로 살아야 할 사명감에 사로잡히네요~
15.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강한 믿음을 주님이 권찰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먼저는 우리 가족의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시댁의 신앙도 바로 잡겠습니다.
16. 구역장님을 잘 보필하시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시는데요, 나만의 남편 내조 비법이 궁금해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17. 워십 “빛을 들고” 율동하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셨어요. 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어떤 독무를 하고 싶으세요? 매우 기대가 되요.^
독무는 지금으로는 먼 일 이고요. 집사님들의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가르쳐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8. 올해 표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 믿음과 지혜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가장 최근 것으로 들려주세요.
남편이 요 며칠 새벽 기도로 테클을 걸었었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지혜 있게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못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20. 스스로 연약하여 질 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구절이 궁금해요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아멘



김학순 권찰님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늦은 연세에 신앙의 삶을 시작하셨지만 어느 청년 부럽지 않은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김학순 권찰님이 바로 오늘에 주인공 이십니다. 이른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가장 먼저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에 불을 밝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목사님께서 사용하실 생수와 수건을 준비하십니다. 다음에는 성전에 있는 확분 하나하나에도 사랑을 쏟으시고 가꾸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신다는 고백을 하시며 어린 아이같이 예쁜 웃음을 얼굴 가득이 웃어 보이시네요~

날마다의 예배와 기도생활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일들은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생활에 큰 기쁨과 활력을 주신다니 권찰님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김학순 권찰님의 분이 되는 행함을 보시고 기쁜 웃음 크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권찰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고 열심과 열정 있는 신앙으로 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으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시는 권찰님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가버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숨은그림 : 숫자 4, 물음표, 삼각자, 바케트 빵, 변기 압축기]



학생회.청년회 헌신예배



2017년 학.청 동계수련회

주제 : 너 하나님의 사람아! (버려라, 취하라, 누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후전 6장 11-12절)



<이단특집>

통일교란?

[통일교(문선명)]...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1.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며 성부로만 존재
- 2.하나님도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임
- 3.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존재임
- 4.기독교는 통일교의 형님으로 가인임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타락에서 구원해 줄 재림주가 문선명임

문선명이 창시한 한국의 신흥종교. 흔히 '통일교'로 불린다. 초대 교주이자 초대 총재였던 문선명이 2012년 사망한 이후, 그의 부인인 한학자가 총재로서 교단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

본부는 서울역 서부역 남쪽에 있고(주소가 용산구다.) 본부교회인 천복궁(天福宮)은 용산역 인근에 있는데 2010년 들어 용산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

이 천복궁 인근에는 계열사인 세계일보 본사도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세계일보 본사 인근은 재개발 중이라 가산동으로 이전한 상태.

당초에는 천복궁 인근의 스타시티 부지가 세계일보 본사였는데, 이 땅을 매각하면서 한몫 제대로 챙겼다.

기독교내 이단으로 출발했으나 독립적인 신흥종교로 정립되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와 기존의 개신교, 천주교와는 교리적으로 신관, 인간관에 대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68년 간행된 통일교 교리서 <원리강론>부터 창조론 등의 면에서 이미 기성 기독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름 그대로 종교의 통일을 꿈꾸는 건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인 기독교의 예수,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꾸란 동상을 통일교 본부 내에 건립했다. 다른 종교는 어찌고 종교를 통일해 서로간의 종교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 종교의 성인들을 모두 떠받든다고 한다.

창설 당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란 이름처럼 기독교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각종 동양 사상과 여타 종교의 교리를 버무려 만들어낸 사상으로 서양에서도 의외로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 실제로 7~80년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 중에서는 모르몬교 전파나 통일교 결혼 때문에 온 경우가 많았다.

* 빛 - essay,225 -



*** 투님!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터갈을 치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인제나 내 아픔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투님!!**

점손~~~

자신을 낫추는 사람

매년 방학이 되면 정신여고 톨 라이프 중창단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연주 활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오래 전 인솔자와 함께 중창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고등학교, 교회, 대학들을 순방하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원은 모두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차를 타야 할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차 있는 데로 뛰어가 서로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 날 동행했던 장로님 한 분이 지켜보고 있다가 인솔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학생들은 차를 탈 때마다 앞을 다투어 뛰어갑니까?” 인솔자의 대답은 자동차의 좌석이 열두 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명은 차 바닥에 앉으려야 하는데 서로 먼저 타서 앉드리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장로님이 직접 차 있는 데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뛰어간 두 여학생이 바닥에 앉드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정신여고의 중창단을 위하여 15인승 봉고차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것은 앞드리고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위치나 소유나 입장을 내세워 앞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고벨료보다 더 위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앞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백인부부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된 여인은 농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하녀의 딸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주인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별판에서 주워서 가지고 놀던, 소녀가 가장 아끼던 광채 나는 큰 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여자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임을 알았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느 날 불현듯 흑인 소녀를 기억하고 싸구려 인형을 하나 사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흑인 소녀는 그 인형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매일 인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이 들었을 때에 그 인형을 자기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딸은 그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형과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백인 여자는 돈 때문에 파생되는 자식들과의 불화와, 자신의 돈을 노리는 온갖 사람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일생 돈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무엇을 자식에게 남겨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진실 된 당신의 삶을 물려준다면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만 주려 한다면 그들은 고통의 감옥 속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유머

코끼리와 개미의 사랑

코끼리와 개미가 사랑을 했습니다.

이상스럽게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둘은 꿈같은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찌할고! 남편 코끼리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남편 코끼리의 장례식이 있던 날 운구 행렬을 뒤따르던 개미는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랍니다. 앞서가던 동생 개미는 말도 안되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었고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일찍 과부가 돼버린 언니 개미가 너무 미워서 얼굴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애처롭게 울고 있는 언니가 불상해 보이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생겨서 울고 있는 언니를 달래주려고 뒤돌아갔는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언니의 울음소리!

"아이고, 흑흑흑!!! 언제 다 묻나? 언제 다 묻나!!!"

경상도 말의 놀라운 압축능력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 **고다교 씨쌔**

저것은 무엇입니까? : **저기 뭐고?**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 **할뱅교?**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 **자는 누구?**

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 **우야노!**

어쭙, 이것 봐라! : **이기로!**

너 정말 나한테 이걸 수 있나?! : **팍!**

왜 그러시는데요? : **와요?**

야, 그러지 좀 마! : **쫘!**

이 물건 당신 건가요? : **니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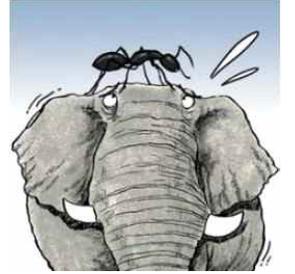
네, 그건 제 물건입니다 : **인 도!**

어디에 숨기셨나요? : **우짚노?**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죠? : **갸가 가가?**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가 안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겠니? :

니카이 그카제, 내카이 그카나?



<이달에 issue>

주인에게 버림 받은 개와 고양이

어느 날 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기 강아지와 아기고양이는 주인들에게 분양된 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난다. 하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집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말썽을 자주부리는 개와 고양이를 가진 주인 중 일부는 그 개와 고양이를 길로 내몰고 있다.

길로 내몰리고 있는 개와 고양이는 점점 야생성을 가지고 적응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무리를 지어 다니며 주변 농가의 닭, 염소, 소 등을 늑대처럼 사냥하고 다녀 주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들개의 경우는 멧돼지보다도 활동반경이 훨씬 넓어 개체 수나 서식 상태조차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반려동물이 버려진 뒤 야생에 적응하면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시작은 기독교 이단 분파에서 다시 분파가 나오는 형식으로 시작했지만(문선명씨는 원래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성서신학과 기독교 근본원리 교육을 6개월 받고 탈퇴했음) 지금은 기독교와 기초는 같지만 제일 꼭대기에는 문선명을 앉혀놓은 형상을 취하고 있다.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문선명의 90번째 생일축전을 문선명에게 직접 보냈다. 의외로 주류취급을 받고 있다.

통일그룹 주요 계열사	
순위	기업
선원건설	종합 건설사. 선문대 응평리조트 등 각종 건설 사업
세계일보	종합 일간지
세일로	건물 관리 전문 업체
세일여행사	여행사
아시아해양	수산물 유통 및 양식 회사
응평리조트	종합 리조트 회사
일성해양산업	여수 개발 사업
일신석재	석재 개발·생산·판매
일화	음료 사업, 인삼 가공 수출
JC	골목 가공 및 폐수 처리
통일스포츠	성남일화천마 프로축구단
TIC	자동차 부품 회사
신정개발	특장차 및 군용차

자료: 통일그룹

통일교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	
분류	기관명
교육기관	브리지포드대학교(미국)·미국통일신학대학원(미국)·천주청평수련원·선문대학교·청심신학대학교대학원·청심국제중고등학교·선화예술고등학교·선정중학교·경복초등학교
언론 출판	워싱턴타임스(미국)·UPI통신(미국)·데일리리뷰(미국)·월드&아이(미국)·타임포스 델 문도(중남미)·미틀리스트타임스(중동)·올티마스노티디아스(중남미)
사회 복지 기관	청심병원·청심빌리지(실버타운)·천주청평수련원·청심국제연수원·천주국제청소년수련원
스포츠 및 문화 예술	피스컵국제축구대회·리틀엔젤스예술단·유니버설발레단

[딸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1. 쿨한 사과

부모님들도 사실 인간인지라 틀린 말 하실 때도 있고, 실수하실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에는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쿨하게 사과해주셨음 좋겠어..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그냥 '엄마가 미안해' 라는 한마디 말이면 되는데, 아직 한번도 못 들어봤다.

2. 비교 없는 칭고

부모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걱정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인거 아니까 칭고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이런 거 감사한데 '누구 자식은 이런데 너도 이렇게 해라~' 던지 '요즘 20대들 컴퓨터 자격증 다 있는데 너도 하나 따야지..' '스펙이 중요하다던데 너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같은 비교? 경쟁? 이 담긴 그런 칭고는 압박이 돼.. 물론 적당한 건 괜찮지만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칭고를 해 주셨음 좋겠어.

3. 외적 칭찬

사실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외적으로도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집에서 이쁘다 소리 별로 못 듣고 자라서 부모님이 우쭈쭈 해주고 내 새끼 최고! 이쁘다! 이런 말 해주는 거 너무 부럽거든~ '우리 딸 정도면 최고지' 같은 말 들으면 없던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 ⇨⇨

4. 비난, 막말이 아닌 비판

내가 잘못해서 혼나야 할 상황일 때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성을 잃고 아무 상처 주는 말 막하면 가슴에 다 남더라구..ㅠ 나는 엄마 상처받을까봐 말 가려서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랑 별 상관도 없는 말들도 막 하고.. 화내지 말구 조곤조곤 대화로 풀어갔음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지.

5. 애정 어린 관심

'너 공부 했니?' '이번 학기 성적은 얼마나 나왔어?' 같은 관심 말고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어린 말들을 받고 싶어.. '그때 그 친구랑 잘 풀었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맘 편한 대화

6. 온전한 믿음, 지지

사실 인생사가 항상 잘 풀릴리 없잖아? 돌아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해하시지 않고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니가 잘돼야지 우리가 살지 너만 믿는다' 같은 압박 주는 믿음? 말고 '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해 파이팅'과 같은 말을 듣는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7. 무조건적인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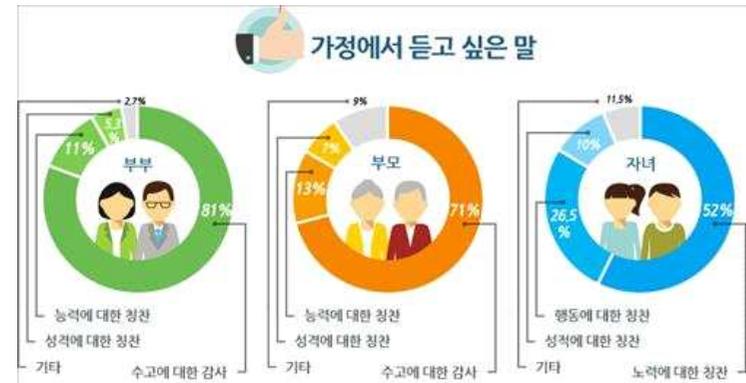
밖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위로받고자 하는 맘에 하소연 좀 했는데 위로해주기보다는 잘잘못 따지거나 그러면 너무 힘빠져. 물론 나중에 칭고해줄 수 있어도 일단은 나를 다정하게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8. 칭찬

이건 너무 뻔하지만.. 부모님은 거는 기대치가 높으시니까 아직 어린 우리가 부족해보일 수도 있고 더 잘했음 싶고 해서 칭찬에 박할 수도 있어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도 있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시지 말고 소소하게 잘한 일들도 기분 좋게 칭찬해주셨으면 좋겠어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잖아?

9. 사랑해

'니가 내 딸이어서 엄청 행복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가슴이 따뜻해지고 누구보다 행복 해 지는 말. -피온글-



◎ 이달의 교회소식

1. 인쇄기교환 / 3월 3일
2. 커피머신설치 / 3월 9일 교육관
3. 기관장헌신예배 / 3월 5일 오후7:30
4. 기관장단합대회 / 3월 9일 오후7:00 놀부부대찌게
5. 등산대회 / 3월 13일 오전9:00 선운산
6. 에스더여선헌신예배 / 3월 19일 오후6:00
7. 2회족구대회 / 3월 25일 오후3:00 당진정보고

◎ 공지사항

1. 3월 신앙생활표어 /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
2. 3월 신앙서적 / 스펀전의 은혜 ‘찰스 H. 스펀전’
3. 특별새벽기도회 / 3월 13일~17일

◎ 이달의 교우소식

1. 군휴가 / 김성광청년 3월 7일~19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시사용어 Briefing

데르트 마케팅 Techart Marketing

기술(Tech)과 예술(Art)의 합성어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목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명작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접목시켜 소비자의 구매욕과 브랜드 가치를 상승.

헬리콥터 머니 Helicopter Money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국민에게 돈을 뿌리듯 직접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 돈을 나눠 주기에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라고도 한다.

엠바고 Embargo

특정 국가와 직, 간접적인 경제교류 중단.
해당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때 사용. 경제봉쇄조치라고도 한다.
매스컴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때의 엠바고는 허가된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 시키는 것.

체리 피킹 Cherry Picking

케이크 위의 체리만 쏙 빼가는 것에서 유래해 좋은 것만을 골라가는 것을 말한다. 특정 서비스나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 또는 저평가된 주식, 상품만 골라 투자하는 행위. 실속만 차리는 고객을 체리피커라고도 한다.

카피캣 Copycat

모방하는 것 흉내쟁이 라는 뜻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특정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비하하는 용어. 애플의 전 CEO 스티브잡스가 생전 삼성전자 등의 라이벌들을 ‘카피캣’ 이라 비난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핫 머니 Hot Money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환율 차이를 이용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부동산, 사회적 이슈나 환율 변동에 맞춰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달의 제철음식>

3월

쑥
3월

쑥기가
뻗어나가
지 않고
응달에서 독장 나온
어린 쑥이...



달래
3,4월

달래의 제철은 이른 봄,
비닐 하우스 재배로 언제
든지 맛볼 수 있지만...



딸기

1,2,3,4,5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과육의 붉은...



한라봉

12,1,2,3월

한라봉은
껍질이 얇은것이 당도가
높다. 껍질이 아주...



취나물

3,4,5월



소라

3,4,5,6월

살이 있고 살이 위로
빠져나오지 않은 것, 들어
보았을 때 무겁고...



꼬막

11,12,1,2,3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것을 고른다.



도마

1,2,3,4월

몸은 길동글고 납작
하며 몸빛은 황색, 홍색



주꾸미

3,4,5월

다리의 촉반이 뚜렷한
것을 고른다.



바지락

2,3,4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도마

11,12,1,2,3월

몸은 길동글고 납작
하며 몸빛은 황색, 홍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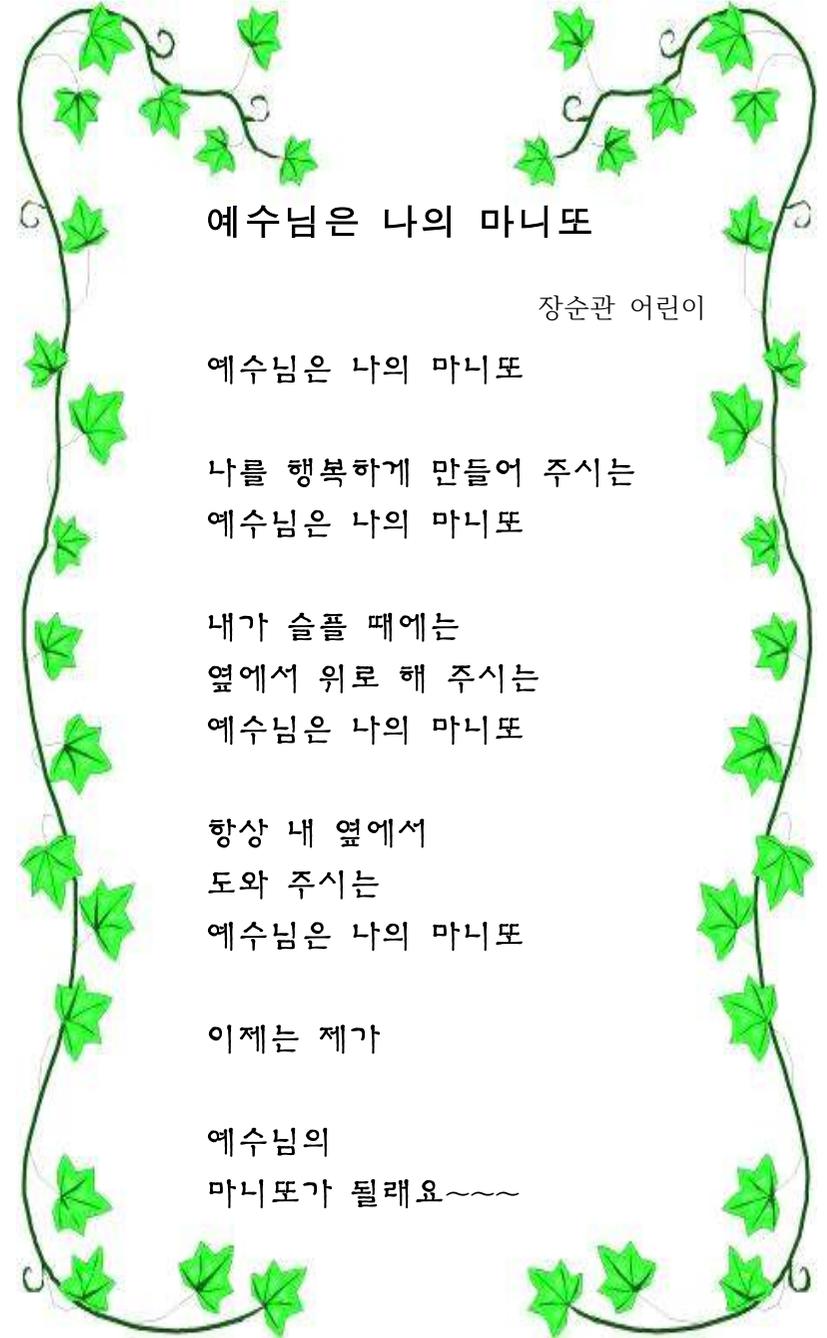


쑥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여자들에게 특히 좋으며 쑥떡이나 쑥버무리, 쑥국으로 만들어 먹으면 짹짹하면서도 쑥의 은은한 향과 함께 맛난 봄철 제철음식 일순위로 꼽힌다.

딸기는 봄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딸기체험축제가 곳곳에서 열릴 정도로 봄철 최고의 과일로 꼽히는 딸기는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냉이는 향긋한 향이 입맛을 자극하는 봄나물로 단백질 함량이 많고 비타민A와 비타민C,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입맛을 되찾아줄 것이며 냉이 나물로 먹어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찌게인 된장찌게에 넣어먹는 향긋한 냉이 된장찌게가 인기 만점.

날도 따뜻~해지고 겨울내내 딱딱히 굳어있던 우리 몸을 가뿐하게 풀어줄 3월 제철음식으로 건강하게 봄을 맞이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마니또

장순관 어린이

예수님은 나의 마니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마니또

내가 슬플 때에는
옆에서 위로 해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마니또

항상 내 옆에서
도와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마니또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마니또가 될래요~~~